#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한 새사람

(목요일 — 오전 2부 집회)

메시지 2

## 사람의 아들과 둘째 사람과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성취하심

성경: 창 1:26, 마 16:13, 26:64, 24:30, 고전 15:45, 47, 눅 1:35

**Ⅰ.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과 둘째 사람과 마지막 아담이시다.**

A.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이시다 — 단 7:13, 마 16:13, 요 1:51.

1.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서 수행될 수 없다.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시는 것이 필요했다.
2. 육체 되심 안에서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이시다 — 마 16:13.
   a. 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 마 1:18, 20, 눅 1:35.
   b. 그분은 또한 사람인 처녀 안에 잉태되시어 그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시다 — 마 1:23.
   c. 신성한 방면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간적인 방면에서 그분은 사람의 아들이시다.
3. 주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도 하늘들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 사람의 아들이시고(행 7:56), 하늘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가지고 다시 오실 때에도 사람의 아들이실 것이다(마 26:64, 24:30).

B. 육체 되심 안에서 그리스도는 둘째 사람이시다 — 고전 15:47.

1. 온 우주 안에는 오직 두 사람, 곧 첫 사람인 아담과 둘째 사람이신 그리스도만 있다.
2.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하늘에서'는 둘째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신성한 기원과 하늘에 속한 본성 둘 다를 가리킨다.
3. 첫 사람 아담은 옛 창조물의 머리로서 창조 안에서 옛 창조물을 대표한다. 둘째 사람 그리스도는 새 창조물의 머리로서 부활 안에서 새 창조물을 대표하신다 — 고전 15:47.
   a. 우리 믿는 이들은 태어날 때 첫 사람에게 포함되어 있었지만,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둘째 사람의 일부가 되었다 — 창 1:26, 요 3:3, 5-6.
   b. 우리가 첫 사람의 일부인 면에서 보면 우리의 기원은 흙이며, 우리의 본성은 흙에 속한 것이다. 우리가 둘째 사람의 일부인 면에서 보면 우리의 기원은 하나님이며, 우리의 본성은 하늘에 속한 것이다 — 고전 15:47.

C.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이시다 — 고전 15:45하.

1.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두 창조물을 함축하고 있다. 옛 창조물에서는 산 혼인 사람이 중심이며, 부활 안에 있는 새 창조물에서는 생명 주시는 영이 중심이시다.
2.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이신 것은 옛 창조물의 종결과 마침을 함축한다 — 고전 15:45하, 고후 5:17.
   a. 옛 창조물은 한 사람 곧 마지막 아담으로 끝난다.

b. 옛 창조물을 종결한 이 사람은 부활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 — 고전 15:45하.

3. 그리스도는 육체 되심을 통해 마지막 아담이 되시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옛 창조물을 종결하셨고, 마지막 아담이신 그분은 부활을 통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심으로 새 창조물을 발아시키셨다 — 갈 6:15.

**Ⅱ.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과 하나님-사람의 생활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성취하였다 — 창 1:26-27, 요 1:1, 14, 눅 1:31-32, 35, 2:40, 52.**

A.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 곧 사람이 생명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여 그분의 신성한 속성들 안에서 그분을 표현하게 하시려는 그분의 목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 창 1:26, 2:9, 행 3:14상, 엡 4:24.

B. 사람-구주는 인간 본질로부터 태어나 인간 미덕들을 가지셨는데, 그 목적은 이 인간 미덕들을 하나님의 속성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수준에까지 높여서 하나님을 표현하게 하려는 것이다 — 눅 1:35.

1. 인간 미덕들의 내용과 실재인 신성한 속성들을 가지고 신성한 본질로 잉태된 분이신 그리스도는 비어 있는 인간 미덕들을 채우신다 — 마 1:18, 20.
2. 신성한 속성들은 인간 미덕들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목적으로, 인간 미덕들을 채우고 강화하며 풍성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

C. 육체 되심을 통해 그리스도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사람 안으로 이끌어 오셨다 — 눅 1:35, 요 1:1, 14, 골 2:9.

D.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온전한 사람으로서 신성한 본성과 사람의 본성을 갖고 계신데, 그분의 신성한 본성과 사람의 본성은 각각 구별된다 — 레 2:4-5.

E. 그리스도는 하나님-사람, 곧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신 인격이시다 — 눅 1:35, 빌 2:5-8.

1. 그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신성한 속성들과 모든 인간 미덕들을 본다.
   a. 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신성한 본질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신성한 본성과 함께 신성한 속성들을 소유하고 계신다 — 마 1:18, 20.
   b. 주 예수님은 사람인 처녀에게서 태어나 인간 본질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 본성과 함께 인간 미덕들을 소유하고 계신다 — 눅 1:26-35.
2. 그리스도의 인간 생활은 하나님을 삶으로써 인간 미덕들 안에서 신성한 속성들을 표현하는 사람의 생활이었다 — 눅 7:11-17, 10:25-37, 19:1-10.

F. 그리스도는 풍성한 속성들을 지니신 넘치는 하나님을 그분의 인성 안에서 그분의 향기로운 미덕들을 통해 표현하셨다 — 눅 7:36-50, 히 2:17.

1. 그리스도는 사랑과 빛과 거룩함과 의라는 신성한 속성들을 표현하셨다 — 엡 3:19, 요 8:12, 행 3:14상.
2.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미덕들에는 그분의 긍휼, 자비, 온유, 관용, 겸허, 순종, 신실함, 진실함이 포함된다 — 히 2:17, 마 9:36, 11:29, 고후 10:1, 빌 2:8, 롬 5:19, 고후 11:10.

G. 첫 번째 하나님-사람이신 그리스도는 사람으로서 사셨지만, 사람의 생명에 의해 사람의 미덕들 안에서 사람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살지 않으셨다 — 요 5:19.

1. 그분은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에 의해 살지 않으셨다. 그보다 그분은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에 의해 진정한 인간 생활을 하셨다.
2. 하나님-사람의 생활 안에서 주님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은 하나님의 생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담는 기관이었다.

H. 하나님-사람의 생활 안에서 주 예수님은 결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셨고(요 5:19), 자신의 일을 하지 않으셨으며(4:34, 17:4), 자신의 말을 하지 않으셨고(14:10, 24), 아무것도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으셨으며(5:30),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다(7:18).

I. 주 예수님은 그분의 생활에서 우주 안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성취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그분의 인성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하신 것이다 — 히 1:3, 요 14:9-10.

**Ⅲ. 그리스도는 그분의 하나님-사람의 생활로 인하여 하나의 원형으로 조성되셨는데, 이것은 그분께서 이제 우리 안에 재생산되시고 우리 안에서 다시 사시기 위한 것이다 — 갈 2:20, 빌 1:20-21상.**

A. 누가복음은 첫 번째 하나님-사람께서 사신 하나님-사람의 생활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이제 이 역사가 우리 존재 안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 고후 3:3.

B. 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신성한 속성들로 충만한 인간 미덕들을 가진 분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 눅 2:10-11, 25-32, 19:9-10.

1.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을 우리 존재 안으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속성들로 우리의 미덕들을 충만하게 하신다 — 고전 15:45하, 6:17.
2. 그러한 생명이 우리를 속에서부터 구원하고 우리의 인간 미덕들을 높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변화시킨다 — 롬 5:10, 12:2.

C.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는 여전히 신성한 속성들로 강화되고 풍성하게 된 인간 미덕들을 소유하신 분이시다 — 갈 2:20.

1. 우리 안으로 분배되고 계시는 그리스도는 신성한 속성들을 지닌 신성한 본성과 인간 미덕들을 지닌 인간 본성으로 구성되신 분이시다 — 갈 4:19.
2. 그리스도는 그분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그러한 종류의 삶을 지금도 믿는 이들 안에서 살기를 추구하고 계신다. 우리 안에서 그분은 신성한 속성들과 인간 미덕들로 구성된 삶을 여전히 살고 계신다 — 요 14:19하, 고후 10:1, 11:10.

D.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사람의 재생산이 되고 하나님-사람이신 그리스도를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영이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다시 태어나고, 우리의 혼이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변화되어야 한다 — 요 3:3, 6, 고후 3:18.

E.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추구하며 주님과 교통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사람이 묘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 안에서 살게 된다.

1.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움직임과 인도에 따라서 산다 — 빌 2:12-13, 4:11-13.
2. 우리가 주님께 자신을 열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하나로 결합되기를 갈망할 때, 우리는 주님으로 채워지고 주님의 소유가 되며 신성의 영광과 인성의 미덕들을 살아 내게 된다 — 고전 2:9, 6:17, 빌 4:4-9.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 하나님의 형상과 신성한 속성들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조금 더 생각해 보자. 신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라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묘사해야 하는지를 물어야 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며 빛이시라고 말한다(요일 4:8, 1:5).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의 본성이고,

빛은 하나님의 표현의 본성이다. 성경은 또한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심을 계시한다. 하나님에 관하여 사용된 형용사 '의로운'은 하나님의 방식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방식은 항상 의롭다. 그분은 결코 불의하게 일하지 않으신다. 형용사 '거룩한'은 하나님의 내적 본성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과 빛이시며, 의로우시고 거룩하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묘사이다.

어떤 사람의 형상을 묘사할 때, 그의 키와 몸무게와 머리카락 색깔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정확하지 않은 것이다. 사람의 형상을 묘사하려면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말해야 한다. 이것은 사람으로서의 그의 속성들, 그리고 그의 인격과 기질의 특징들을 묘사해야 한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묘사하려면 그분의 속성들을 묘사해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은 이 네 단어, 곧 사랑과 빛과 의와 거룩함으로 묘사된다. 이것들이 하나님의 속성들이다. 그러므로 '신성한 속성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빛과 의와 거룩함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과 빛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양에 관한 묘사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관한 묘사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즉 사랑은 그분의 존재이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즉 빛은 그분의 존재이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존재는 행위에 있어서 의로우시고 본성에 있어서 거룩하시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요 묘사이다. 이러한 묘사의 네 가지 주요 특징이 하나님의 속성들이다.

## 신성한 속성들을 담을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으로 창조됨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에게는 사랑과 빛이 있으며, 의롭고 거룩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비록 우리는 타락했지만, 타락한 상태에서도 사랑과 빛을 갖고 있으며, 하나님처럼 의롭고 거룩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과 빛과 의와 거룩함을 소유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뜻이다. 사람의 사랑과 빛과 의와 거룩함은 우리가 '인간 미덕들'이라 부르는 것이다. 이러한 미덕들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빛과 의와 거룩함을 담을 수 있는 역량을 지니도록,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인간 미덕들은 하나님의 속성들을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 사람의 사랑과 빛과 의와 거룩함은 신성한 사랑과 빛과 의와 거룩함을 담을 수 있도록 창조된 역량들이다.

어디에서나 사람들은 남을 미워하는 것이 우리의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사실에 동의한다. 더 나아가 거짓말을 하고 훔치며 어둠 가운데서 행하는 것도 우리의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다. 비록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식당이나 가게에서 실수로 거스름돈을 더 많이 받게 될 때 그것이 불의하다는 느낌을 갖는다.

여기의 초점은 사람이 사랑과 빛을 가질 수 있도록, 또한 의롭게 행하고 거룩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 의해 지어졌다는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곧 하나님의 사랑과 빛과 의와 거룩함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므로 이러한 미덕들을 지닌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미덕들은 하나님의 속성들을 담을 수 있는 역량이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의도는 사람이 생명나무이신 그분을 그의 생명과 내용으로 취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 하나님-사람이 되는 것에서 아담이 실패함

만약 아담이 생명나무를 먹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생명으로 취했다면, 그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의 인간 미덕들은 하나님의 속성들로 가득했을 것이다. 그럴 때, 사람의 미덕들은 하나님의 속성들을 표현했을 것이다. 만약 아담이 그렇게 했다면,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사람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기 위해 수천 년을 기다리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만약 아담이 에덴동산에서 생명나무에 참여했다면, 그는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하나님 자신의 모양에 따라 하나님에 의해 지어진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생명이신 하나님과 그의 인간 미덕들을 채우는 하나님의 속성들로 충만

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만약 아담이 그러한 사람 즉 하나님-사람이 되었다면, 그는 하나님을 사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실패했으며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 놓았다. 하나님은 아담을 그분의 계획에 따라 지으셨다. 그러나 아담은 생명나무 대신 선과 악의 지식나무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을 망쳤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성은 손상되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상실되었다. 그러나 … 사람-구주의 육체 되심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였다.*(누가복음 라이프 스타디, 56장, 477-479쪽)*

##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

앞의 메시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과 하나 되도록 계획하셨음을 지적하였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계획하셨으므로, 그분은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의 모양에 따라 창조하셨다. 형상은 내적인 존재를 가리키고, 모양은 외적인 모습을 가리킨다. 사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분의 복사판이 되게 하시려는 의도로 그분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더 나아가 사람이 하나님의 복사판이 되려면 하나님의 어떠함을 담을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복사판이 되기 위해 그분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그분의 표현이 되기 위해 그분의 모양에 따라 지어졌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이 그분을 표현하기 위하여 그분의 복사판이 되게 하는 것이었다. 이 목적을 수행하려면 반드시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하여 생명나무이신 그분을 담아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사람인 아담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손상했다. 수천 년 후에, 사람-구주께서 오셔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셨다.

## 둘째 사람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들 안에서 사람이 되셨다. 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에 따라 목적을 갖고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사람은 그분의 목적 안에 있는 그분의 기대를 저버렸고 그분의 계획을 무너뜨렸다.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창조하시는 대신에, 그분 자신이 직접 오셔서 둘째 사람이 되셨다(고전 15:47). 하나님은 아버지 안에서도, 영 안에서도 아닌, 아들 안에서 둘째 사람이 되어 오셨다.

신약에서 육체 되심에 대해 말하는 방식은, 말씀 곧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셨고(요 1:1, 14),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셨다(딤전 3:16)는 것이다. 첫째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그분의 계획을 망쳐 놓았으므로, 하나님 자신이 둘째 사람이 되어 오셨다. 둘째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자!

### 성령으로 잉태되시어 사람 처녀에게서 나심

둘째 사람이신 사람-구주는 창조되지 않으셨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사람 처녀에게서 나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질을 소유하시기 위해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사람의 본질을 소유하시기 위해 사람 처녀에게서 나셨다. 그러므로 이 둘째 사람은 두 본질, 곧 하나님의 본질과 사람의 본질로 구성된 분이셨다. 즉 이분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mingling)이셨다. 이 기이한 분은 두 본질로 구성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셨으므로 하나님-사람이셨다.

### 신성한 생명이 충만한 인간 생활을 사심

하나님-사람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그분께서 내용이 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인간 생활을 사셨다는 것이다. 몇몇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로, 누가복음은 단지 이야기책이 아니다. 이 복음서는 내용이 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인간 생활을 사신 하나님-사람에 관한 계시이다. 그러한 삶을 사신 분으로서, 사람-구주는 신성한 속성들, 즉 하나님의 사랑과 빛과 의와 거룩함을 지닌 신성한 본성을 소유하셨다. 그 속성들을 지닌 신성한 본성은 모든 인간 미덕들을 지닌 사람-구주의 인간 본성을 통하여 표현되었다.

### *하나님–사람의 사랑*

신성한 속성들을 지닌 사람–구주의 신성한 본성이 인간 미덕들을 지닌 그분의 인간 본성을 통하여 표현되었으므로, 그분이 땅 위에 사셨을 때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인지 사람이 사람들을 사랑한 것인지는 말하기가 어렵다. 사람–구주의 생활에서 우리는 어떤 사랑, 곧 하나님–사람의 사랑, 신성한 생명이 충만한 인간 생활을 사신 분의 사랑을 본다. 주님께서 이렇게 사셨으므로 그분의 사랑은 신성한 사랑, 곧 신성한 속성으로 충만한 인간적인 사랑, 즉 인간 미덕이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몇몇 사례들은 사람–구주의 사랑이, 신성한 사랑이라는 속성이 인간적인 사랑이라는 미덕을 통해 표현된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예증한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례에서(10:25–37), 바리새인인 시몬의 집에 온 죄 많은 여인의 사례에서(7:36–50), 십자가에서 주 예수님께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한 강도의 사례에서(23:39–43) 본다. 각 사례에서 주 예수님은 참된 인간적인 사랑을 나타내셨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은 단지 인간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성한 사랑으로 충만한 인간적인 사랑이었으며, 신성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강화되고 고양되고 부요해진 인간적인 사랑이었다.

누가복음을 읽을 때, 우리는 사람–구주에게 신성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충만되고 강화되고 고양되고 부요해진 인간적인 사랑이 있었음을 보지 못할 수 있다. 신약을 읽는 사람들은 주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 아이들은 "예수 날 사랑하심, 난 안다네"라는 찬송을 배우기까지 한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어떤 종류의 사랑인가? 그분의 사랑은 인간적인가, 신성한가? 그분의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만이 아니며 신성한 사랑만도 아니다. 그분의 사랑은 신성한 사랑에 의해, 신성한 사랑과 함께 충만되고 강화되고 고양되고 부요해진 인간적인 사랑이다. 이 기이한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과 신성한 사랑으로 구성되고 연합된 사랑이다. 이 사랑이 사람–구주의 삶이고 하나님–사람의 삶이었다. 주님의 삶은 신성한 속성들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고 강화되고 고양되고 부요해진 인간 미덕들의 문제였다.

### *사람–구주가 되실 자격이 있음*

바로 이러한 삶이 주 예수님에게 우리의 사람–구주가 되실 자격을 주었다. 그분은 인간적이고도 신성한 그러한 삶, 즉 인간적이고 신성하며, 신성하고 인간적인 삶을 사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셨다. 주 예수님의 삶은 인간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었고 신성하기만 한 것도 아니었다. 그분의 삶은 인간적이고 신성하며, 신성하고 인간적이었다. 주님의 삶은 불쌍한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게 한 역동적인 능력이었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단지 신성한 사랑만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할 것이다. 물론 인간적인 사랑만으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우리를 구원하는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과 신성한 사랑으로 구성된 것이어야 한다. 이 두 사랑의 연합이 곧 구원하는 사랑이다.

사람의 생활이 신성한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고, 인간 미덕들이 신성한 속성들로 인해 강화되고 부요해진 그러한 삶을 우리는 최고 수준의 도덕성이라 부른다.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신성한 속성들로 말미암아 강화되고 고양되고 부요해진 인간 미덕들로 충만한 삶을 본다.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로 구성되고 연합되는 것을 본다. 이러한 삶이 곧 구원하는 능력이고, 주 예수님께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 있는 자격을 준다. 사람–구주는 하나님–사람이신 그분의 신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격이 있으시다.

주 예수님을 따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그분을 알되, 인간 미덕들을 통하여 신성한 속성들을 표현하는 삶을 사셨던 분으로 아는 정도까지 그분을 알아야 한다. 우리의 사람–구주는 그러한 분이시다. 그분은 그렇게 사셨으므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고 우리를 구원하실 자격이 있으시다.

우리의 사람–구주이신 이분은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을 성취하셨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그분의 삶과 일에 대한 하나님의 입증과 승인으로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그분을 일으키셨다. 이 부활하신 하나님–사람은 하늘로 오르셨고 보좌에 앉으셨으며 영광과 존귀로 관 쓰셨고 만물의 머리가 되셨다. 오, 우리 모두는 이 기이한 분을 알아야 한다!

##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을 통한 타락한 인성의 회복

사람-구주의 육체 되심은 주로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이끄는 것이었다. 그분의 육체 되심은 또한 손상된 인성을 회복하고 되찾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형상대로 그분 자신의 모양에 따라 아담을 지으셨지만, 아담은 타락했다. 이제 타락한 인성 안에는 죄, 곧 마귀의 악한 본성이 있다(롬 7:17, 요일 3:8).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인성 역시 여전히 남아 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체가 되셨을 때, 그분은 손상되고 잃었던 인성을 회복하셨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죄의 육체의 모양(롬 8:3), 즉 타락한 인성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그리스도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타락한 인성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육체가 되셨다. 물론 그분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러나 그분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난 후, 사람을 회복되지 않은 채로 남겨 두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은 타락한 사람을 회복하지 않은 채 구출만 하신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가기를 고대한다. 그러나 하늘에 가는 사람은 모두 회복된 사람, 변화된 사람일 것이다. 변화되는 것은 회복되고 되찾아지는 것이다.

### 두 종류의 인성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분은 타락의 상태로부터 구출된 인성을 지니셨다. 육체 되심을 통하여, 그분은 되찾아지고 회복된 인성을 입으셨다. 하나님-사람이 그러한 고양된 인성으로 살고 계셨을 때, 그분의 제자들을 포함한 그분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타락되고 손상된 인성으로 살고 있었다. 그들의 인성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원래의 인성이 아니었다. 반대로, 그것은 손상되고 변질된 인성이었다. 그 한 예로, 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죽음을 당하시고 삼 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들 중에 누가 더 큰 자인가 하는 문제로 논쟁을 벌였다. 여기서 우리는 두 종류의 인성, 곧 고양되고 회복되고 되찾아진 주님의 인성과 변질되고 손상되고 상실된 제자들의 인성을 본다.

### 제자들의 인성의 회복

사람-구주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의 제자들의 타락한 인성이 회복되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 우리는 제자들이 또 다른 종류의 인성, 곧 고양되고 회복된 인성을 지녔던 것을 본다. 복음서에서 그들은 누가 더 큰 자인가 하는 문제로 다투었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에서 그들은 십 일 동안 한마음 한뜻으로 지속적으로 꾸준히 기도할 수 있었다. 그들은 또 다른 인성을 소유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그들의 인성은 고양되고 회복되고 되찾아졌다. 그 영의 거듭나게 하심과 변화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인성을 회복하고 되찾게 되었다.

에덴동산에서 아담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1장에서 살았던 그러한 삶을 살았어야 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목적을 저버렸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은 육체 되심을 통하여 둘째 사람이 되어 오셨다. 이 둘째 사람은 변질되고 손상되고 상실된 인성을 고양시키고 회복하고 되찾으셨다. 사람-구주의 회복하심을 통하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다른 제자들은 그분의 인성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로 이끄시기 위해 그분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것이 그분의 의도라면, 하늘은 변질된 인성을 지닌 사람으로 가득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의도가 아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왕국에서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주님께 구했던 한 강도가 여전히 자신의 타락한 본성을 지닌 채 하늘로 이끌릴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분명한 것은 하늘에 있는 사람들 중 누구도 강도의 본성을 소유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하늘로 인도된 모든 사람은 회복된 사람들일 것이다. 우리의 인성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의 사람-구주가 되신 것에 의해 가능하게 되었다. 사람-구주의 육체 되심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다.*(누가복음 라이프 스타디, 57장, 480-486쪽)*